

# “한 마리아긴 하지. 하지만 사자야”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2월의 책 '이슈 우화 전집'



인간은 건너가는 존재다. 건너가려는 자는 멈추지 않고 어디론가 떠난다. 당연히 여행에 인간의 속성이 제일 많이 담겨있다. 여행은 빈틈없이 치밀하고 짝 찬 자신에게 일부러 빈틈을 만들고, 공간을 허용하고, 정해진 의미들을 털어내고, 시간을 낭비하는 척하면서 스스로 흔들리게 한다. 질문은 여행이고 대답은 멈추기다. 문명의 주도권은 질문하는 자가 쥘다. 대답은 논증과 논변의 주변에 살고, 질문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의 한 형태다.

이야기하는 자가 질문하는 자다. 문명의 주인 자리는 논증하거나 논변하거나 자질하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크게 이야기하는 자가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어쩌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여행 떠나라. 자신만의 이야기가 잘 건설되지 않아도 여행을 떠나보라. 끊임없는 건너가기로 자신의 공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완성의 길이라면, 이 여행은 필연적으로 이야기의 형식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문자를 사용하는 인간 가운데서 논증하거나 논변에 빠진 자는 크기가 작다. 더 커지고 싶은 자는 이야기를 한다. 논증이나 논변에는 여백이 없다. 오죽하면 논문 심사를 방어(defence)라고 할까. 논문은 어쩔 수 없이 공격과 방어의 현장에서 선명하게 존재한다. 빈틈이 있으면 바로 패배하는 것이 논변의 운명이다. 그런데 이야기는 오히려 빈틈을 생명으로 해서 산다.

이야기에서의 빈틈은 소비되거나 남비되는 공간이 아니라, 더욱 생명력 있는 울동감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공간이 된다. 들던 자들은 이 여백의 빈틈으로 자신도 몰래 스며들어 이야기에 참여하며 결국에는 이야기의 공동 생산자로 이름을 올린다. 감동의 공유와 폭이 커진다는 말이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사실을 증명한 논문을 수백 편 읽어오 거짓말을 끊기는 어렵다. 차라리 피노키오의 이야기책을 제대로 한 번 읽으면 거짓말을 당장 끊을 수도 있다. 빈틈이 만들어내는 참여의 공간 때문이다. 이 공간에 한 번 들면 감동의 파장을 피하기가 어렵다. 논증이나 논변에서 상대방은 성(城) 밖의 존재가 되지만, 이야기에서는 성(城) 내의 존재다. 같은 성 내에 사는 사람끼리는 아무래도 성 밖의 사람들보다 더 친하게 지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여 감동은 논증보다는 이야기 안에서 더욱 쉽게 발견된다. 감동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는 큰 사람이다.

이야기는 아버지보다는 주로 할머니에게서 많이 나왔다. 아버지는 옹거나 쓸모없는 말씀을 주로 대낮에 하였고, 할머니는 쓸모없이 재밌지만 한 이야기를 주로 밤에 많이 해주셨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달랐다.

이야기꾼은 아무리 있는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더라도 생산자의 속성을 아예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이야기를 듣는 자도 사실은 이야기하는 자가 배풀어놓은 빈틈으로 스며들어 참여자가 되는 관계로 생산자의 역할까지도 공유한다. 그래서 들 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하는 자도 할 때마다 달라지고, 듣는 자도 들 때마다 달리 듣는 이야기의 변주에는 한계가 없다. 이야기의 변주를 따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많은 모양과 색깔을 갖게 된다.

이솜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꾼이다.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야기꾼은 그리 많지 않은데, 이솜은 참 특별하다. 그의 이야기는 가끔 달리 들리기도 한다. 어렸을 때, 나는 '시골 쥐와 도시 쥐' 이야기를 읽고는 고통 속에서 풍족하게 살기보다는 부족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편이 더 나음을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달랐다. 들면서 겨우 보리와 곡식을 먹을 수 있을 뿐인 시골 쥐를 천하게 여긴 도시 쥐가 치즈와 꿀과 무화과 등이 풍부하게 있는 도시로 시골 쥐를 데리고 갔다.

어렸을 때, 나는

‘시골 쥐와 도시 쥐’ 이야기를 읽고 가난하더라도 맘 편한 것이

제일이라는 교훈을 얻곤 했는데,

이번에는 풍요를 누리려면

그에 합당한 수고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새롭게 읽혔다

하지만 그 풍성한 먹을거리를 먹으려 할 때마다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놀라는 바람에 편히 먹을 수가 없었다. 시골 쥐는 “자네나 배 터지게 먹으며 큰 즐거움을 누리시게나. 많은 위험과 두려움을 감수하면서 말일세! 가련한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아무 두려움 없이 보리와 곡식을 값싸고 먹으며 살아갈 것이네.”라고 말하며 시골로 돌아간다. 가난하더라도 맘 편한 것이 제일이라는 교훈을 얻곤 했는데, 이번에는 풍요를 누리려면 그에 합당한 수고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새롭게



정광희 작 'Endless story'

읽혔다. “큰 즐거움”은 “많은 위험과 두려움을 감수”하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 어떤 수고도 하지 않으려는 시골 쥐와 큰 즐거움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도시 쥐 사이에서 이동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네 삶의 한 형태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이쪽과 저쪽 사이를 흔들리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지금 저쪽으로도 흔들릴 줄 알게 된 것 같다.

논증이나 논변에 빠진 자들은 언제나 이미 있는 것들의 진위나 선악을 다투는 일로 바쁘다. 여기서는 무게중심이 이미 있는 것들로 조금 더 기울어 있다. 이와 달리, 이야기는 빈틈 사이로 열려있어서 이미 있는 것들보다는 앞으로 올 것에 관심을 더 둔다. 여기서는 무게중심이 이미 있는 것들보다는 앞으로 올 것을 조정하는 이야기꾼 자신에게 더 있다. 지식의 영역에도 수입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다고 할 때, 생산의 순간은 논증이나 이야기로 일어난다. 모든 생산은 이야기다. 우주선의 생산도 최초에는 이야기로 촉발된다.

논증은 이야기를 수습할 뿐이다. 이야기꾼은 의

부의 간섭을 받기보다는 자신을 자신의 호기심에 따라 부리는 자다. 이야기꾼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에 더 가깝다. 질문하는 자가 대답하는 자보다 더 자기 자신에 가까운 것과 같은 이치다.

독수리가 날아 내려와서 새끼 양 한 마리를 채가는 것을 보고 갈까마귀가 자기도 한 번 해보려고 “숫양을 내리 뺐었다. 하지만 숫양의 뿔뿔이 날아 떨어져 버려 버려 갈까마귀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러자 모두가 달려들어 막대기와 몽둥이로 갈까마귀를 때렸다.” 사자 가족을 뒤집어쓰지만 않았으면, 갈까마귀는 망신을 당할 일이 없었다. 사자를 부러워하는 갈까마귀의 내면은 참 초라하다. 자신을 향해 감지 않은 내면이기 때문이다.

“새끼를 고작 한 마리밖에 못 낳는다며” 여우가 “면박을 주자” 암사자가 조용히 한마디 한다. “한 마리아긴 하지. 하지만 사자야.”



※ 철학자 최진석 교수와 함께 읽는 3월의 책은 루선의 '이Q정전'입니다. <광주일보 3월 2일자 16면 참조>

#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총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내)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에세이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에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년을 맞아 떠난 한중일의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년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랑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